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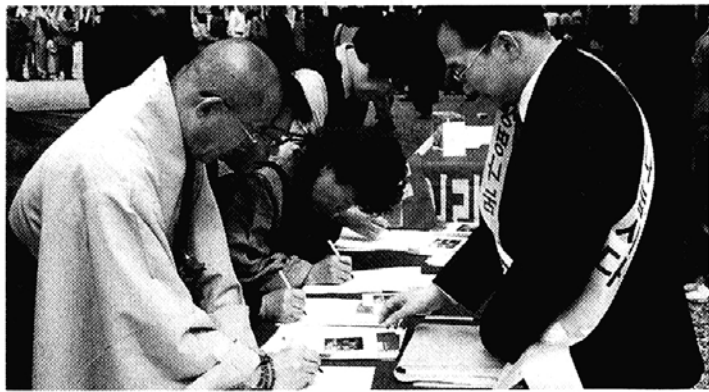
■ '삶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 현대불교·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생명나눔 실천' 전국 확산

10월 은해사 법회

장기기증 52명 서약
화장유언 3백23명

개산 1190돌 수계법회
주지진산식·음악회도



○은해사 캠페인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백여명이 서명에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다. 특히 금강국수공장 후원회가 벌이는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도 나란히 개최돼 동체대비사업과 생명존중에 대한 불자들의 경각심을 드높였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회 이사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주지 현지스님 봉주 무비 지하 성진 법조 법타 해인 해국 묘 유 동산 돈관 법산스님, 이성운 대부불교 방송 방송국장.정재균 영천시장, 조창현 경북도 문화관광국장 등 중진스님들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은해사=이윤호 기자
(y.lee@buddhapia.com)

주지 법의스님 법문



오늘은 은해사가 산문을 개창한지 1190년이 되는 날이자 제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며 정은해사가 불국정토구현의 시발점이 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으며 공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이를 실천할때 생명나눔 운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동체대비 정신 본받아 나와 이웃을 사랑하자”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자기자신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고 나아가 동체대비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불교는 이상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고통을 여의고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상의 현실종교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부터 지혜를 증득케하여 번뇌방망으로부터 벗어나 화합된 생활로 이끌어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락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남을 아끼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 버린다면 이는 곧 개인의 불행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불행입니다. 우리모두 화합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때 종단발전과 국가발전이 이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보살행원과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자기혁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명사들의 건강비결 ⑩



유상중

(대구전도대교수)

“특별한 건강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화사신도회 유상중회장(69금강)은 요즘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열마진 새로 조직한 동화사신도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조직정비와 신도교육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바쁜가운데서도 유회장은 매일 아침5시쯤 어김없이 기상해서 30분간 금강경을 독송하고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 이어 비가오건 눈이오건 근처 운동장을 찾아 30~40분간 여름에는 속보물, 겨울에는 조깅을 한후 맨손체조를 한다. 한때 만보계를 허리에 차고 하루 만보걸기를 생활화했던 유회장은 많이 걷는것이 건강에 제일좋은 비결이라는 지

매일 새벽 금강경 독송·걷기 운동 “욕심 많으면 병생긴다” 마음 비워

론을 갖고 있다. 속보를 할 때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는데 이렇게하면 마음을 모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구신행단체연합회장과 대구과학대 명예교수등을 겸하고 있는 유회장은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로 규칙적인 생활과 종학고시절부터 계속해온 조깅을 꼽는다. 조깅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육군사관학교2기생인 유회장은 연대장 재임시절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km구보 테스트에서 일등해직업을 잘못택했다는 주위의 평판을 얻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건강비결의 하나로 꼽는다. 욕심이 많으면 남과 다투기 쉽고 마음이 산란해지며 그러다보면 기가 훌쩍어 건강을 잃기 마련이다.

“욕심이 많으면 병도 많다”는 유회장은 “부처님께 의지해 착실히 수행생활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기자

방송 소식

BBS가을개편 '역사산책' 등 3개프로 신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7일부터 청소년 및 신형, 교양 프로그램 등을 보강한 가을철 프로그램 부분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BBS역사 산책' '참선이야기' '살며 생각하며' 등 3개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BBS역사산책'(PD 문태준, 밤11시10분~밤12시), 중앙승가대 김상영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는 역사학자와 향토사학자들을 초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교 유입 문제 등 불교의 역사와 고승의 행적들을 재미있게 소개하고있다. 또 '살며 생각하며'(PD 강선문, 밤12시~새벽1시)에서는 초격스님(광명선원 원장)이 전화 연결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 준다. 이외에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

게 마음다스리는 법을 일러줄 '참선이야기'(PD 이영준, 아침7시10분~아침8시)도 방송된다.

BBS후원회 ARS 개통

700-0180-1통화 5천원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이 지난 11일부터 후원회 ARS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 후원회 ARS는 기존 후원모금 방식인 은행 지로와 자동이체가 후원자들이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 ARS모금은 청취자들이 해당 번 호로 전화를 걸면 한 통화당 5천원의 금액이 다음달 전화요금과 지사로 청구된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은 양질의 포교 프로그램을 위한 고민을 상담해 준다. 이외에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

시모저모

장기기증 받은 불자 참여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중앙본부는 물론 대구장각자부(지부장 삼업)에서도 지도법사 득도스님을 포함한 10여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참가했으며, 특히 만성신우전증을 앓다 생명나눔실천회를 통해 지난97년 장기를 기증받은 박대석씨(44세 대구)도 부인과 함께 건강할 모습으로 자원봉사에 나서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북돋기 캠페인 병행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벌이던 박

장수(43세, 서울)씨와 박창규(55세,서울)씨

중 금강국수공장 후원회원 4명도 이날 화장유언서약에 동참. 특히 박창규씨는 93년도에 이미 장기기증서약까지 마친 신심깊은 불자로 “생명나눔운동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며 소감을 피력했다.

장병들도 줄지어 서명

○이날 진산식을 가진 은해사주지 법의스님은 누구보다 앞서 사후각막기증 및 뇌사시 장기기증서약에 동참해 모범을 보였다. 이어 화장유언서약에 동참한 스님수가 20명을 넘어서는 등 스님들이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산대제와 진산식행사를 지원하러

온 제201특공여단 소속 이윤석상사(34세 영천시 하양읍)와 10명의 장병들도 줄지어 화장유언서약에 동참해 이채를 띠었으며 서울 보광사(용산구) 자비회 신도들도 줄지어 서약해 박수를 받기도.

“화장정책” 한목소리

○서약에 동참한 불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이제는 화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한마디씩. 문경에서 왔다는 함계옥 보살(50)은 “불교는 이미 2천여년전에 화장을 주장했으니 참으로 멀리 내다보는 종교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법회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서약(52명)

법의스님 지성스님 돈명스님 강영선 고 현 권 혁 김갑일 김은영 김승철 김일영 김재일 김학수 김한수 류명하 박노경 박운영 박준언 박준희 박찬희 박정욱 백군자 백명욱 신영욱 양현주 유태일 이기원 이선현 이순재 이은옥 이은주 이인근 이정기 이종선 이종환 이춘자 이춘희 이현경 임영자 임영희 임찬배 장금자 정소영 정승준 조석환 조재희 조치완 차상식 최춘환 한용주 허일성 현의숙 홍현숙 황도인

화장유언서약(323명)

법의스님 계도스님 금강스님 법산스

남 법성스님 보은스님 선용스님 소요스님 손목스님 원용스님 자영스님 종원스님 지공스님 지성스님 혜월스님 동명스님 김이경 강영선 강경희 강태출 강현숙 고 현 고덕자 고은조 권혁 권기순 권도성 권숙희 권오옥 권용백 권영순 권현순 김 준 김갑일 김경미 김경선 김경조 김경희 김귀화 김금숙 김길조 김낙식 김다남 김대원 김도이 김미순 김미자 김선걸 김선화 김성보 김성복 김성훈 김순자 김생집 김양호 김영순 김영애 김영욱 김영자 김옥련 김옥자 김중부 김운욱 김운조 김은영 김용철 김일영 김재일 김재환 김정길 김주보 김준자 김준희 김태동 김태순 김필식 김학수 김한수 김한주 김향숙 김현숙 김형중 김혜영 김희라 노영희

노재환 도한준 도해인 류명하 류집삼 무유성 문순남 민경호 박계년 박계수 박계자 박남순 박노경 박대석 박동철 박명자 박무욱 박봉욱 박선미 박연자 박영욱 박정정 박옥남 박용태 박운영 박운자 박준희 박준희 박찬희 박준자 박춘자 박치민 박태관 박태기 박태희 박인성 박형욱 배국자 박군자 백명욱 백영화 백정민 백형순 서의숙 신종현 설대원 성덕화 손정해 송귀중 송기락 송성용 송은수 송춘희 신대일 신미옥 신보현 신상희 신영옥 신영주 신재자 신정숙 신태근 신길연 안강련 안귀보 안인숙 양명순 양상자 양자이 양현주 여성향 오봉순 오혜경 우연옥 우육환 우육환 유근순 유상실 유순옥 유옥성 유은경 유태일 윤문복 윤복화 윤석근 윤순용 윤순이 윤옥자 윤운심

불교대사전

한국불교대사전 편찬위원회 엮음
전7권 / 값 350,000원

찬란한 우리의 문화를 꽃피운 전통불교의 모든 것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20만 수천 매라는 방대한 원고량을 검토, 수정, 정정을 거듭하여 완전무결하게 다듬은 불교사전의 결정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 사상, 예술, 문학,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 사천으로서의 완결판인 불교대사전은 7만 5천여 행의 진수만을 골라 일반인은 물론 전문인들도 불교를 연구하는데 손색 없는 사적이다!

명문당 ☎ 02)733-3039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1,2,3,4)

성내경 지음 / 값 15,000원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불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중명출판사 ☎ 02)2636-6873

佛法은 體요 世間法은 그림자라

판자: 지현(정용철) / 값 10,000원

한국불교를 일깨운 중흥조 진각성종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

심(心)은 곧 불(佛)이요, 불은 곧 심(心)으로 불(佛)은 심의 법이라, 불(佛)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가 되니, 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 것이라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 ☎ 02)913-0753

차가있는 삶

이연자 지음 / 값 7,000원

차는 우리에게 맛과 여유 그리고 차신(茶禪)으로써 이끌어 주는 영물(靈物)

차가 있는 삶, 차와 함께 하는 삶은 언제나 맛과 여유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차는 맑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맑음 속에 건강과 웃음과 덕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는 정(靜)·중(中)·동(動)이 어우러질때 그 맛과 여유가 더욱 드러난다. 이 책은 이연자씨가 차를 가까이 하면서 얻은 생활의 지혜이다. 이연자씨는 말한다. “차를 가까이 하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 많아지지만 참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영물(靈物)이다.” 차가 들어있는 음식, 차가 들어있는 음료, 차가 들어있는 모든 것은 차(茶)만큼이나 그 정신이 향기롭다.

초롱 ☎ 02)738-5791,730-0235

불교학대사전 (상, 하)

弘法院

김상 지음 / 값 220,000원

불교학대사전(상, 하)

총 65,000여 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 이 사전은 그 방대한과 현대적 표현이 특징이다. 용어의 재검에 있어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중요한 불교문헌 등을 널리 섭렵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각국의 민간신앙이나 제방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까지 수록하고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의 원어를 표시하여 설명의 정확을 기하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는 문장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설명으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법원 ☎ 02)734-7614